

랩 위드의 AI 기반 솔루션 >

두산·HD현대·LG가 팔란티어를 선택한 이유, 우리 회사 자가진단 30문항



기술사업화 랩 위드
2026.08.12. 15:15 조회 21

댓글 0 URL 복사

팔란티어는 왜 '데이터'가 아니라 '온톨로지'를 팔까 — 국내 기업 지식 자산화 체크리스트 30문항

3줄 요약

- 팔란티어의 진짜 상품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온톨로지(Ontology)'입니다.
회사에 존재하는 것(명사)과 회사가 하는 일(동사)을 하나의 구조로 묶어, 데이터를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일하는 지도'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 구조는 3계층입니다.
의미 계층(무엇이 존재하는가) → 운동 계층(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동적 계층(더 나은 선택은 무엇인가). 이 순서를 건너지 않으면 AI를 아무리 붙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 지금 당장 할 일은 플랫폼 구매가 아니라 자가진단입니다.
본문 하단의 체크리스트 30문항(60점 만점)으로 우리 회사 성숙도를 확인하시고, 90일 로드맵으로 Level 2 → Level 3 구간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1. 왜 지금 '온톨로지'인가

최근 2년 사이 국내 대기업의 움직임이 뚜렷해졌습니다.

시점	기업 / 기관	내용
2024년	KT × 팔란티어	AIP(AI Platform) 한국 시장 공식 출시, 국내 보안·규제 환경에 맞춘 구조로 재설계
2024~2025년	두산인프라코어	국내 최초 팔란티어 전사 도입 사례로 거론
2026년 1월	HD현대	팔란티어와 전사 단위 계약 체결 (로이터 보도)
2026년 3월	LG CNS × 팔란티어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사내 FDE(현장배치 엔지니어) 팀 구성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데이터 분석 툴"을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팔란티어 공식 문서는 온톨로지를 "조직의 운영 레이어(operational layer)"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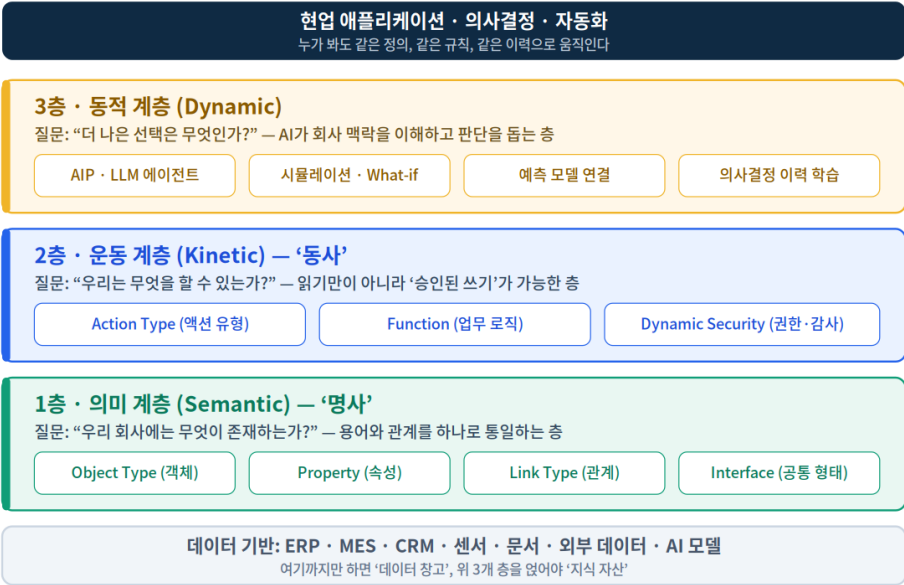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가"를 다루고,
온톨로지는 "우리 회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다룹니다.

즉, 회사를 소프트웨어 안에 복제(digital twin)해 놓고, 그 복제본 위에서 현업이 실제로 일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2. 온톨로지 3계층 구조 — 명사, 동사, 그리고 판단

팔란티어 온톨로지(Ontology) 3계층 구조

데이터를 ‘쌓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복제’해서 실행시키는 구조



자료: Palantir 공식 문서(Ontology Overview) 기반 재구성 · 기술사업화 랩 위드㈜

[그림 1] 팔란티어 온톨로지 3계층 구조

1층 · 의미 계층(Semantic) — '명사'를 정한다

질문: 우리 회사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구성요소	원어	쉬운 설명	예시
객체 유형	Object Type	현실에 실제로 있는 '것'의 정의	고객사, 수주, 제품, 설비, 특허
속성	Property	그 객체가 가진 정보 항목	납기일, 수량, 가동률, 등급
관계	Link Type	객체와 객체를 잇는 선	고객사 —발주— 수주
인터페이스	Interface	여러 객체가 공유하는 공통 형태	'자산'이라는 공통 틀

핵심은 각 객체가 살아 있는 실제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문서로만 존재하는 개념도가 아니라, ERP·MES·CRM의 실제 값이 그 객체에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옵니다.

2층 · 운동 계층(Kinetic) — '동사'를 정한다

질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지점이 일반적인 데이터 플랫폼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시맨틱 레이어'는 읽기 전용입니다. 온톨로지는 승인된 쓰기가 가능합니다.

구성요소	원어	쉬운 설명
액션 유형	Action Type	화면에서 버튼 하나로 실행되는 '업무 행위'의 정의 (예: 납기일 재조정)
함수	Function	복잡한 업무 규칙·계산 로직을 코드로 정의
동적 보안	Dynamic Security	누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바꿀 수 있는지 실시간 통제

액션 하나에는 ① 입력값 검증규칙, ② 부가 효과(알림·후속 시스템 호출), ③ 감사 이력이 함께 정의됩니다. 그래서 어느 화면에서 실행하든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3층 · 동적 계층(Dynamic) – '판단'을 돕는다

질문: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인가?

AIP(AI Platform)와 LLM 에이전트, 시뮬레이션, 예측 모델이 여기에 붙습니다. AI가 잘 작동하는 이유는 모델이 좋아서가 아니라, AI에게 "우리 회사가 어떤 구조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1·2층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3. 쉽게 보는 온톨로지 – 제조기업 예시

쉽게 보는 온톨로지 – 제조기업 예시

명사(객체)를 선(관계)으로 잇고, 그 위에 동사(액션)를 얹으면 ‘일하는 지도’가 된다



기술사업화 랩 위드㈜ 작성 ·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

[그림 2] 제조기업 온톨로지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

"A고객사 납기가 왜 밀렸고, 원인 설비는 무엇이며, 담당자는 누구인가?"

방식	소요 시간
엑셀 취합 방식	영업팀 파일 + 생산팀 파일 + 품질팀 파일을 받아 대조 → 통상 2~3일
온톨로지 방식	고객사 → 수주 → 제품 → 생산설비 → 품질검사 로 선을 따라가면 → 수 초

차이를 만드는 것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연결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대체 설비 배정" 액션을 실행하면, 그 판단 자체가 다시 데이터로 쌓입니다. **의사결정이 소모되지 않고 자산으로 축적되는 구조**, 이것이 온톨로지의 본질입니다.

4.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	기존 DW · 데이터레이크	온톨로지
목적	데이터를 모아 보관·조회	회사를 모델링해 실행
단위	테이블, 컬럼, 행	객체, 속성, 관계, 액션
사용자	데이터 분석가	현업 실무자
쓰기	원칙적으로 읽기 전용	규칙이 검증된 쓰기 가능
업무 로직	별도 애플리케이션에 분산	온톨로지 안에 통합
신규 과제	매번 데이터 정비부터 반복	기존 객체 재사용 → 누적 효과
AI 연결	맥락 없이 데이터만 전달	회사 구조와 규칙까지 전달

한 줄 요약 : DW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온톨로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한계점

- 팔란티어 온톨로지는 국제 표준(OWL·RDF·SPARQL)을 사용하지 않는 자체 방식입니다. 다른 플랫폼으로 그대로 옮기기 어렵다는 점, 즉 종속성(lock-in) 이슈가 있습니다.
- 현장배치 엔지니어(FDE)를 투입하는 구축 방식이라 비용과 기간 부담이 큼니다. 중소·중견기업이 곧바로 도입하기에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접근은 **"팔란티어를 사자"가 아니라 "팔란티어가 검증한 구조를 우리 회사 방식으로 먼저 만들자"**입니다.

5. 국내 기업이 자주 하는 3가지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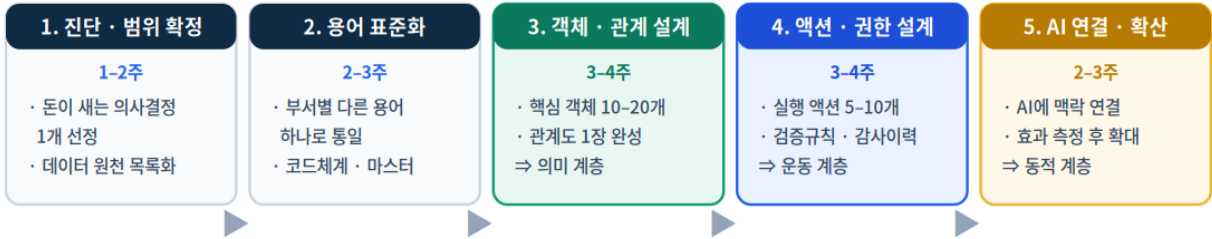
오해	실제
① "우리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못 한다"	실제 원인은 데이터 부족이 아니라 용어 불일치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영업의 '고객', 생산의 '거래처', 회계의 '매출처'가 각각 다른 코드로 관리되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② "AI를 도입하면 정리는 알아서 될 것이다"	AI는 정리되지 않은 회사를 대신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맥락이 없는 데이터를 넣으면 그럴 듯하지만 틀린 답이 나옵니다.
③ "대기업 얘기다"	오히려 규모가 작을수록 객체 수가 적어 10~20개 객체로 회사 전체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작업입니다.

6. 지식 자산화 5단계 로드맵과 성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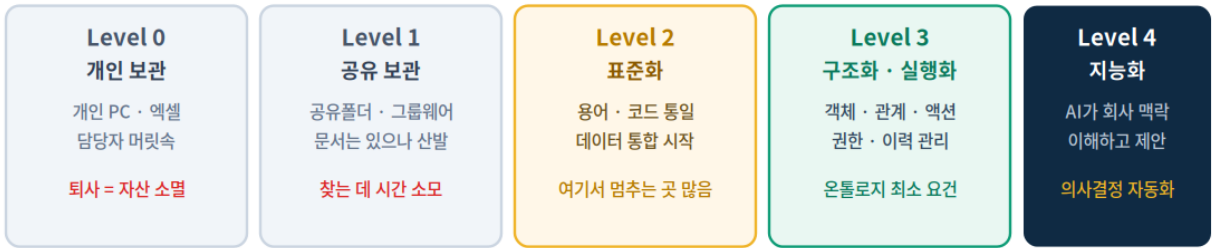
국내 기업 지식 자산화 — 5단계 로드맵과 성숙도

플랫폼 도입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명사와 동사'를 정하는 것이 먼저다

① 90일 실행 로드맵



② 지식 자산화 성숙도 5단계 — 우리 회사는 어디인가?



Level 2를 건너뛰고 Level 4(AI 도입)로 점프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AI는 정리되지 않은 회사를 대신 정리해 주지 않는다 — 구조가 먼저다

기술사업화 랩 위드(주) 작성 · 성숙도 구분은 컨설팅 현장 관찰에 기반한 정성적 분류

[그림 3] 지식 자산화 5단계 로드맵과 성숙도

성숙도 5단계

단계	상태	현상
Level 0 개인 보관	개인 PC·엑셀, 담당자 머릿속	퇴사하면 자산이 사라짐
Level 1 공유 보관	공유폴더·그룹웨어	문서는 있으나 찾는 데 시간 소모
Level 2 표준화	용어·코드 통일, 데이터 통합 시작	많은 기업이 여기서 정체
Level 3 구조화·실행화	객체·관계·액션 + 권한·이력	온톨로지의 최소 요건 충족
Level 4 지능화	AI가 회사 맥락을 이해하고 제안	의사결정 자동화

가장 흔한 실패 패턴은 Level 1~2에서 곧바로 Level 4(AI 도입)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 지식 자산화 체크리스트 30문항 (60점 만점)

채점 방법 : 예 = 2점 / 부분적으로 = 1점 / 아니오 = 0점

A. 의미 — 우리 회사의 '명사'가 정의되어 있는가 (12점)

No	점검 항목	점수
A1	회사의 핵심 업무 대상(고객, 제품, 설비, 과제 등)을 10~20개 목록으로 정리한 문서가 있다	☐
A2	'고객'의 정의가 전 부서에서 동일하다 (영업·생산·회계가 같은 대상을 지칭)	☐
A3	각 대상별로 필수 관리 항목(속성)이 문서로 규정되어 있다	☐
A4	제품·거래처·자재 코드 체계가 단일 기준으로 관리된다	☐
A5	신규 항목이 생겼을 때 누가 정의를 승인하는지 정해져 있다	☐
A6	용어 사전(Glossary)이 존재하며 최근 1년 내 갱신되었다	☐

B. 관계 —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12점)

No	점검 항목	점수
B1	수주 건에서 어떤 설비로 생산됐는지 즉시 추적할 수 있다	☐
B2	고객 클레임에서 원인 공정·자재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다	☐
B3	부서 간 데이터가 수작업 취합 없이 자동 연결된다	☐
B4	동일 질문에 대해 부서별로 다른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
B5	우리 회사의 데이터 흐름도(관계도)가 1장으로 그려져 있다	☐
B6	외부 데이터(시장·특허·규제)를 내부 데이터와 연결해 본 경험이 있다	☐

C. 실행 — '동사'가 시스템 안에 있는가 (12점)

No	점검 항목	점수
C1	주요 업무 처리(승인, 변경, 배정)가 시스템 안에서 이뤄진다	☐
C2	처리 시 입력값 검증규칙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오입력 차단)	☐
C3	처리 결과가 관련 부서에 자동 통지된다	☐
C4	예외 처리(특별 할인, 납기 변경) 시 사유 입력이 의무다	☐
C5	같은 업무를 여러 화면에서 해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
C6	카카오톡·전화·구두로만 처리되는 중요 의사결정이 거의 없다	☐

D. 거버넌스 — 권한·이력·품질이 관리되는가 (12점)

No	점검 항목	점수
D1	데이터 항목별 접근 권한이 역할 기준으로 부여된다	☐
D2	누가·언제·무엇을 바꿨는지 변경 이력이 자동 기록된다	☐

D3	데이터 품질(누락·중복·오류)을 정기 점검하는 담당자가 있다	☐
D4	핵심 데이터의 책임 부서(Data Owner)가 지정되어 있다	☐
D5	영업비밀·기술자료가 등급별로 분류·관리된다	☐
D6	퇴사자 발생 시 업무 지식이 인수인계 문서 외에도 시스템에 남는다	☐

E. 지능화 준비 — AI를 붙일 수 있는 상태인가 (12점)

No	점검 항목	점수
E1	사내 문서가 검색 가능한 디지털 형태(스캔 이미지 아님)로 존재한다	☐
E2	과거 의사결정의 근거와 결과가 함께 남아 있다	☐
E3	반복 업무 중 자동화 후보 3개 이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 있다	☐
E4	AI 활용에 대한 내부 보안·활용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
E5	AI 도입 효과를 측정할 정량 지표(시간·비용·불량률)가 정해져 있다	☐
E6	경영진이 데이터·AI 과제의 스폰서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다	☐

진단 결과 해석

총점	성숙도	지금 해야 할 일
0~19점	Level 0~1 (개인/공유 보관)	AI 논의를 잠시 멈추고 용어 사전과 코드 체계 통일부터. 인력 이탈이 곧 자산 손실입니다.
20~34점	Level 2 (표준화)	가장 많은 기업이 머무는 구간. 핵심 객체 10~20개와 관계도 1장을 만드는 것이 다음 관문입니다.
35~49점	Level 3 (구조화·실행화)	온톨로지 최소 요건 충족. 액션 5~10개를 시스템에 이식하고 감사 이력을 붙이십시오.
50~60점	Level 4 (지능화)	AI 연결 준비 완료. 효과 측정 지표를 먼저 확정된 뒤 파일럿 확대를 권장합니다.

영역별 점검 요령 : 총점보다 가장 낮은 영역을 먼저 보십시오. A(의미)가 낮는데 E(지능화)에 투자하면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순서는 항상 **A → B → C → D → E** 입니다.

8. 90일 실행 로드맵

단계	기간	핵심 활동	산출물
1. 진단·범위 확정	1~2주	돈이 새는 의사결정 1건 선정, 데이터 원천 목록화	진단 보고서, 우선과제 정의서
2. 용어 표준화	2~3주	부서별 용어 대조, 코드 체계·마스터 정비	용어 사전 v1.0, 코드 표준안
3. 객체·관계 설계	3~4주	핵심 객체 10~20개 도출, 관계도 작성	온톨로지 맵 1장 (의미 계층)

4. 액션·권한 설계	3~4주	실행 액션 5~10개 정의, 검증규칙·감사 이력 설계	액션 명세서, 권한 매트릭스 (운동 계층)
5. AI 연결·확산	2~3주	AI에 맥락 연결, 효과 측정 후 대상 확대	파일럿 결과 보고서, 확산 계획 (동적 계층)

주의사항 3가지

1. 전사 동시 착수 금지. 반드시 한 개 업무 영역(예: 품질 또는 수주·납기)으로 시작하십시오. 팔란티어 도입 기업들도 계열사 한 곳, 한 영역에서 성과를 확인한 뒤 확대했습니다.
2. IT 부서 단독 과제로 두지 마십시오. 객체와 액션을 정의하는 주체는 현업입니다. IT는 구현을 맡습니다.
3. 성과 지표를 착수 전에 확정하십시오. "조회 시간 3일 → 1시간", "재작업률 8% → 5%"처럼 숫자로 표현되어야 확산 예산이 확보됩니다.

9. 맺음말

팔란티어가 증명한 것은 특별한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회사에 존재하는 것(명사)과 회사가 하는 일(동사)을 하나의 구조로 정의하면, 데이터는 창고가 아니라 자산이 된다."

이 명제는 조 단위 매출의 글로벌 기업에도, 임직원 50명의 중소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른 것은 규모이지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30문항으로 우리 회사의 현재 좌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20~34점 구간에 있습니다.

기술사업화 랩 위드(쥬)는 이런 도움을 드립니다

- 지식 자산화 진단 워크숍 (1일) — 체크리스트 기반 성숙도 진단 및 우선과제 도출
- 온톨로지 맵 설계 컨설팅 (4~6주) — 핵심 객체·관계·액션 정의서 작성
- R&D 사전기획 연계 — 보유 기술·특허를 객체화하여 사업화 대상 자산으로 전환
- AI 활용 실행 교육 — 현업 담당자 대상 실무 중심 과정

참고 자료

- Palantir 공식 문서 — Ontology Overview / Action Types Overview
- Reuters — HD현대·팔란티어 계약 보도 (2026.1)
- LG CNS·팔란티어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2026.3)

#팔란티어 #온톨로지 #Ontology #디지털전환 #DX #지식자산화 #데이터거버넌스 #AI도입 #기술사업화 #제조DX #중소기업DX #AIP #Foundry #데이터표준화 #기술사업화랩 위드



기술사업화 랩 위드

댓글을 남겨보세요



등록